opusdei.org

호세마리아 성인의 전 구로...

매일 아침 성인의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드려왔던 저는 감격하며 "역시 성인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 계시는군요!"

2004-1-5

(...) 어느 날 저는 광주교구 신부님의 소개로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몬시 뇰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분은 오푸 스 데이(Opus Dei, 하느님의 일) 창설 자로 선종 27년인 2002년 10월6일에 성인이 되신 분입니다.

저는 그분의 어록「길」을 貶で構?되 었습니다. "하느님, 저는 썩은 새끼줄, 벌레 먹은 사과, 꼬리, 나뭇잎에 지나 지 않는 하찮은 사람입니다. 당신께 서는 왜 제게 어울리지 않은 일을 맡 기십니까?"

그러나 나중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. "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부적절한도구들을 쓰십니다. 그분이 그 일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말입니다."(「길」475) 저는 성인의 그 날카로운 말씀들을 접하면서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.

두달 전,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. 강변 고가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룸 밀러를 보니 웬 트럭이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. 추돌을 면치 못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. '오, 하느님!' 1~2초 후 꽝!하는 소리가 났 고, 제 차는 추돌과 동시에 10미터를 날아가 반대편 차선의 소나타 승용차 와 다시 충돌했습니다. 만취 상태의 트럭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나버렸 는데 제 차 뒷 범퍼에 찍힌 그 트럭의 번호판을 보고 경찰들이 조회해서 붙 잡았다고 했습니다.

저는 뇌, 목, 장기, 뼈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. 3일 후 병문안 온지도신부님과 함께 제 차를 보러 갔습니다. 트렁크와 뒷자석이 운전석과조수석에 맞붙어 있었고, 조수석은소나타 승용차와의 충돌로 아예 없어졌습니다. 남은 공간은 운전석 뿐이었습니다. 신부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"차가 이 지경이 되었는 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니! 기적이야!" 하시면서 연거푸 십자성호를 그으셨습니다.

폐차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혹시 무 엇이 있나 살펴보다가 운전석 위 햇 빛가리개 틈에서 상본 한 장이 나왔 습니다.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 의 상본이었습니다. 매일 아침 성인의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드려왔던 저는 감격하며 "역시 성인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 계시는군요!" 하자, 신부님도 "이 성인의 전구로 미카엘이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살았다."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.

지금도 사고현장을 생각하면 무섭고 아찔하기만 합니다.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꼼짝없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
저는 제 자신이 비천한 인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"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"(루가 9, 26) 날이 많았습니다. 저는 참으로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며 또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. 버릴 것이 많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, 갚아야 할 것이 많으면서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성모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버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.

박찬

(Source: https://cadigest.co.kr/digest/200310/meet.htm)

한국 가톨릭다이제스트 2003년 10월호 "내가만난가톨릭"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hosemaria-seonginyi-jeonguro/ (2025-11-29)